

동시개봉 고만고만…압도적 승자 없었다

1위 ‘안시성’ 이어 ‘명당’ ‘협상’ 순
기대이하 관객 손익분기점 물음표
“동시개봉 서로 잡아먹는 결과 초래”

활짝 웃는 승자는 없었다.
한국영화 기대작 세 편이 나란히 개봉해 치열한 흥행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추석 연휴 극장가에서 크게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둔 작품은 나오지 않았다. 연휴 직전인 19일 개봉한 ‘명당’ ‘안시성’ ‘협상’ 등 세 편의 한국영화 가운데 ‘안시성’이 다른 두 작품을 제치고 2배의 관객 수로 1위를 차지했지만 ‘압도적’이라는 표현에는 어울리지 않는 성과에 머물렀다는 시선이 나온다.
‘안시성’은 25일 현재까지 전국 1530여 개 스크린에서 누적 289만여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이는 2위 ‘명당’(142만여 명)과 3위 ‘협상’(110만여 명)의 2배가 넘는 규모다. 25일 관객까지 포함해 26일 350만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수치상으로도만 보면 올해 추석



‘추석 대전’에 나섰던 영화 ‘안시성’, ‘명당’, ‘협상’ (왼쪽부터).

사진제공 | 스튜디오앤뉴·주피터필름·JK필름

연휴의 극장가 흥행 경쟁은 ‘안시성’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영화의 흥행을 단순한 관객 수만을 기준으로 따져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안시성’의 관계자들은 활짝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안시성’은 200억 원대 제작비 규모로 선보인 대작. 대체로 제작비(200억원) 대비 3배 정도의 관객(600만)이 해당 작품을

관람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보는 현실에서 ‘안시성’이 동원한 관객 수치는 관계자들에게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명당’과 ‘협상’ 역시 100억 원대 제작비가 투입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앞날을 희망적으론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연휴 이후 시장을 기대해볼 만하지만 극장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마동석 주연 ‘원더풀 고스트’가 개

봉하고, 한 주 뒤인 10월3일 김윤석·주지훈의 ‘암수살인’ 등 또 다른 기대작이 관객을 만나게 된다. 연휴를 노린 영화들은 그 힘을 유지하게 하는 물리적 공간인 스크린 역시 이들 신작에 일정 부분 내어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영화는 개봉 이전 기대한 최종 관객 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까지 맞닥뜨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화계와 극장이 일각에서는 3~4편의 한국영화가 같은 시기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개봉 및 배급 전략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이 기대만큼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공급으로 수요마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올해 각 배급사들은 개봉 2주 전 개봉해 첫 주말 관객몰이를 한 뒤 그 기세를 몰아 추석 연휴까지 이어가는 기존의 전략 대신 1주 전 개봉을 택했다”면서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세 편이 동시 개봉해 싸늘이 흥행은커녕 서로를 잡아먹는 결과를 초래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주 전문기자 tadada@donga.com

60일 전투·당태종의 토산…‘안시성’ 어디까지 진짜야?

추석연휴 두 편의 사극 영화가 개봉했다. 고구려 후기 당나라 대군에 맞선 승리의 기록인 조인성 주연의 ‘안시성’, 조선 후기 쇠퇴한 왕권과 세도가의 탐욕을 땅의 기운으로 막으려는 이야기인 ‘명당’이다.
역사가 없었던 태어나기 어려운 작품이지만 꼭 기록에만 충실한 영화도 아니다. 역사를 빼다 삼으면서도 각각의 인물과 설정에는 상상력이 가미됐다. 역사와 판타지의 조합인 셈이다. 때문에 영화를 보고나면 어디까지 진짜이고, 어디서부터 허구인지 사뭇 궁금해진다.

‘안시성’ 제작진은 “역사에 기록된 안시성전투는 단 세 줄 뿐”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심지어 그 기록에는 양만춘이란 이름도 없다. 그만큼 고증이 험난했다는 의미이지만, 한편으론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었다는 뜻이다.

제작진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를 비롯해 중국에 남은 구당서, 신당서, 조선시대 야사를 망라해 이야기를 구성했다. 총 네 차례 나오는 전투 장면은 고대전투 기록을 참조해 상상으로 완성했다. 물론 핵심 설정은 역사를 따랐다. 대표적인 내용이 영화의 하이라

이트인 토산 전투. 안시성을 포위한 당태종 대군이 60일간 토산을 쌓아 공격을 시도하지만, 갑자기 토산이 무너져 안시성 군대에 기습당해 패한 과정은 기록에 남아있다.

영화 초반 나오는 주필성 전투는 645년 고구려와 당나라가 요동 안시성 부근 주필산 일대에서 벌인 싸움. 현지답사를 통해 리얼리티를 살렸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 사물(남주혁)은 극중 태학도라는 사실이 여러 번 부각된다. 태학은 왕권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고구려 국립대학이다. 고구려 철갑기병인 개마무사의 의상 역시

고구려벽화를 토대로 제작했다.
‘명당’이 다룬 1800년대 중반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술하게 배웠고, 드라마에서도 여러 번 다뤄진 덕분에 친숙하다. 영화는 익숙한 역사에 상상을 보태 대부분 허구의 상황으로 꾸몄다. 다만 조소우를 제외한 주요 주인공은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 이들을 왕으로 만들려는 흥선군(지성)과 왕권을 위협하는 세도가 김좌근(백윤식), 김병기(김성균) 부자가 대표적이다. 특히 흥선군이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옛 가야사 터로 이장한 내용은 실화가 기반이다. 김씨 부자는 극 중 ‘장동김씨’로 등장하지만, 안동 김씨를 빗댔다는 사실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이영애·박찬호 ‘파일럿 예능’ 한가위 인기, 정규편성 될까

쌍둥이 육아일상·망가진 매력 급호감

배우 이영애와 ‘코리안특급’ 박찬호가 추석 연휴 안방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이영애는 25일 방송한 SBS ‘가로채널’에서 배우가 아닌 두 아이의 엄마로서 다정다감한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예능프로그램 경험이 많지 않은 그가 자신의 가족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반가움을 선사했다.

이영애는 쌍둥이 낳매 승빈·승권과의 자유로운 일상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 연기활동을 잠시 쉬고 있지만 평소엔 혼자 카메라 촬영을 즐기는 딸 승빈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 출연을 결정했을 만큼 방송 내내 엄마의 따스함을 드러냈다. 프로그램 기획의도인 브이로그(비디오+블로그)의 크리에이터로서는 ‘예우새(예쁜 우리 새끼)’라는 주제로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애정을 표현했다.

박찬호는 새로운 예능스타의 탄생을 알렸다. 연휴 기간 ‘비예능인’ 가운데 유일하게 두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는 25일 MBC ‘독수공방’과 25·26일 SBS ‘빅피쳐패밀리’를 통해 예능 감각을 발휘하며 시청자의 관심을 얻었다.

‘독수공방’에서 박찬호는 낯은 야구공을 복원하며 몇 추억에 잠기는 모습으로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복원 작업에 힘들어하는 다른 출연자들을 살뜰히 챙기는 훈훈한 동료애도 보여줬다. ‘빅피쳐패밀리’속 박찬호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색다른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설플 전라도 사투리 연기로 거침없이 망가지고, ‘투 머치 토크(Too much talker)’라는 애칭의 소유자답게 차인표와 짝을 이뤄 실재 없이 대화를 이어갔다. 김치찌개, 간장 계란밥 등도 척척 만들어내는 요리 실력을 자랑했다.

이영애와 박찬호의 활약으로 이들 프로그램은 정규 편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로채널’은 밤 11시부터 자정을 넘긴 12시45분까지 방영했지만 1.2부 각각 4.6%, 4.8%(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나타냈다. ‘빅피쳐패밀리’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의 최강자로 꼽히는 MBC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대회’와의 시청률 대결에서 1.2부 4.6%, 7.1%로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젝스키스’ 강성훈, 퇴출되나

사기 혐의·인성 논란 등 신뢰도 추락
YG, 콘서트 제외…팬들 ‘아예 나가기’

그룹젝스키스강성훈이사면초가에빠졌다. 사기 혐의 피소, 기부금 횡령 및 팬클럽 운영자와 교제 의혹, 인성 논란 등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리며 연예활동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젝스키스 팬들은 강성훈의 부적절한 언행과 법적 책임, 그룹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젝스키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10월13·14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강성훈은 불참한다고 발표했다. 콘서트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 보컬인 강성훈이 제외되는 초강수가 나왔지만 팬들은 “그룹에서 탈퇴 시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작업 중이던 젝스키스 새 앨범도 보류됐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을 경우 메인보컬로 참여했던 강성훈의 파트를 전면 폐기하고 다른 멤버들이 소화해 다시 녹음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성훈의 향후 연예활동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특히 내년 4월이 전속계약이 끝나는 시점이어서 그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소속사 측은 전속기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강성훈과 재계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성훈이 젝스키스로 재결합하기 전부터 각종 사기 혐의에 휘말렸고, 재결합 후에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팬들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멤버들 간의 우애는 여전하다고 해도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재결합한 만큼 팬들에게 실망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현장.jpg

‘오 마이 갓’세븐

그룹 갓세븐이 스포츠브랜드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의 새 모델로 발탁됐다. 갓세븐은 3월 미니앨범 ‘아이즈 온 유’ 활동 당시에도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손잡았다. 당시 멤버들이 아디다스 트레이닝 수트를 입고 타이틀곡 ‘룩’ 무대를 선사하는 영상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다. 17일 3집 ‘프레존트: 유’를 내고 ‘벌러바이’로 활동 중인 갓세븐은 신곡 활동을 하면서 아디다스와 협업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사진제공 | 아디다스